

<2008년 2월 24일 주일말씀>

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

본 문 시편 121편, 이사야 43

마가복음 9장 28-29절

요한계시록 11장 3-5절

오늘 말씀이다. “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.”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라. 알아도 깊이 한없이 알아야 한다. 아는 것이 사랑이다. 내가 가는 길 못 가게 하지 마라. 내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한다. 일의 결과가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.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다. 베드로가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 혼나지 않았느냐? 내 심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안 된다. 나와 10년 정도 떠나 있으니 관념적이다. 관념이 바뀌었다. 선생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본다. 선생님도 처음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. ‘이 길이 아니지 않는가?’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내 길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마음에 편하고,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.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천번씩 감사하고 기도한다. 그런데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이 기도를 감당하지 못한다. 내가 가는 길을 막으면 내가 괴롭다. 변호사를 사서 한다고 해서 내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. 그러니 일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. 억지로 안 된다. 변호사 산다고 하며 선생님 가는 길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. 선생님의 확실한 관, 선생님을 10년 동안 못 보니까 선생님관이 흔들리고 관념적으로 흘렀다. 관이 바뀐 것이다. 선생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본다. 보여지는 것만 바라본다. 막연하게 믿지 마라. 나를 보고 믿어라.

그리고 철저한 관리. 세밀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라.

- ‘진리와 사랑, 기도’ 라는 말씀도 반복하셨습니다.

이 말씀은 선생님의 원본 말씀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.